

문화예술 | Latin American Culture

칠레 원주민언어대회 참가기

조성훈

2015년 1월 15일과 16일에 걸쳐 칠레 산티아고 알베르토 우르타도 대학에서 칠레 원주민언어대회(Congreso de las Lenguas Indígenas de Chile)가 열렸다. 1차 대회(는 2010년 7월 13일에서 14일, 2차 대회(는 2011년 11월 18일과 19일에 걸쳐 칠레 산티아고대학교에서 있었다. 대회(의 목표는 칠레 원주민이 자기의 언어를 가르치고 지킬 권리와 칠레의 다언어 현실을 초점으로 하여 원주민 언어의 과거, 현재, 미래를 살펴보고 언어의 힘이 되살릴 공공정책, 규범, 실천을 계속해 나가는 것이다. 주관 단체는 칠레 원주민 언어와 교육 권리 협회(La Red por los Derechos Educativos y Lingüísticos de los Pueblos Indígenas de Chile)이나 다른 원주민 단체나 대학, 공공기관 등도 참여한다. 이번 3차 대회에도 유니세프, 산티아고 시청, 칠레 산티아고대학교, 원주민개발기구(CONADI) 등 여러 단체가 참여했고, 특별 초청으로 스페인 바스크 족 자치정부에서도 바스크어 활성화 경험을 소개하려고 대표를 보내왔다. 페루에서도 원주민 언어 활성화 정책 경험을 설명할 대표가 왔다. 이 글은 한국에 칠레 원주민언어대회를 소개하기 위한 것이자 필자가 3차 대회에서 겪은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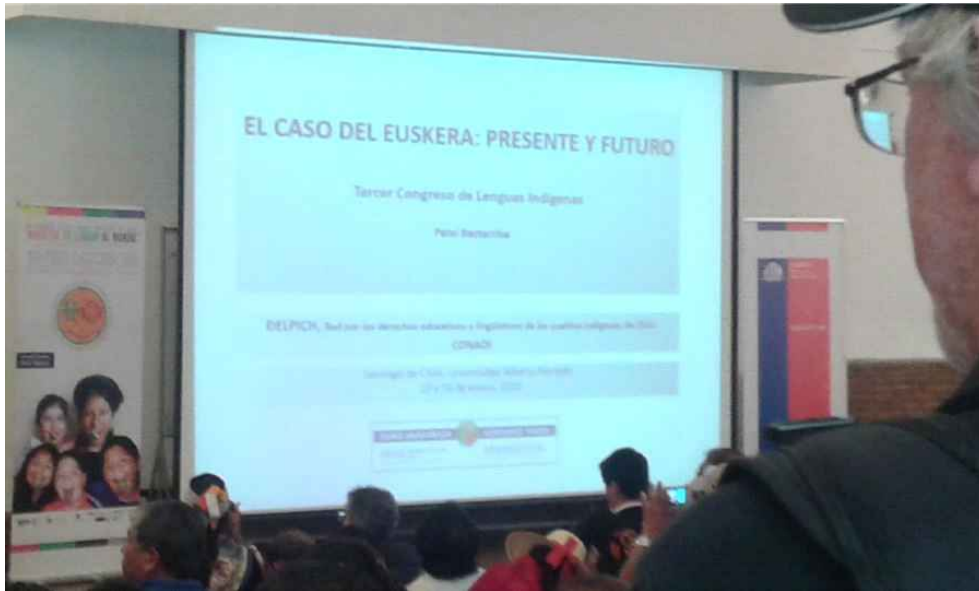
필자는 아침 8시 45분쯤에 알베르토 우르타도 대학교 행사장에 도착했다. 이미 수많은 사람이 북적거리고 있었다. 얼마 뒤 9시 경 대회가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비는 예이푼(Llellipun) 의례로 행사가 시작되었다. 예이푼은 칠레에서 가장 규모가 큰 원주민 민족인 마푸체의 전통 의례이나 이

자리에서는 마푸체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 대표도 함께 참여하였다. 먼저 여러 민족 대표가 자신의 언어로 작은 나무 한 그루 앞에서 기도문을 읊었다. 그 뒤 나무 주위를 둥글게 돌고 발을 구르는 춤을 추었는데, 우리나라의 강강술래와 유사했다. 나무에게 먹을 것과 술을 뿌리는 의식도 했다.

예이푼이 끝난 뒤에도 어느 정도 시간이 있어 대회에 온 여러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디아기타(Diaguita) 족 출신의 가족도 있었는데, 이들은 이미 언어를 잃어버렸다고 했다. 하지만 여전히 원주민이라는 의식만은 간직하고 있었다. 그 뒤에는 한 아이마라 가족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들에게서 아이마라의 뜻을 알 수 있었다. 아이마라는 땅을 뜻하는데, 마푸체의 ‘마푸’ 역시 땅 또는 영토를 뜻한다. 그 뒤에는 새로운 마푸체어 스페인어 사전을 만든 클로린다 안티나오(Clorinda Antinao) 할머니를 만나 책을 사고, 마푸체어로 대화하며 금방 친해질 수 있었다. 안티나오 할머니는 행사 내내 아는 사람 몇 명 없는 대회장에서 필자의 좋은 벗이자 좋은 마푸체 말 상대가 되었다.

11시 반 쯤부터는 마푸체 출신으로 마푸체어를 연구하는 언어학자이자 대회 조직위원 중 한 사람인 엘리사 롱콘(Elisa Loncon), 알베르토 우르타도 대학교 인문대 학장, 원주민개발기구 대표를 비롯한 여러 사람이 대회의 중요성과 앞으로 바라는 바를 밝히는 연설을 하였다. 여기서 여러 가지 얘기가 오갔지만 칠레는 다민족국가라는 점을 인정하고 법으로 원주민 문화와 언어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여 교육개혁에 반영해야 한다는 점에서 모두 뜻을 같이 했다. 마지막으로 링칸 안타이, 디아기타, 랍켄체(마푸체 족의 일원이다. 마푸체 말로 바닷가 사람이라는 뜻), 낙체(역시 마푸체 족의 일원이다. 저지대 사람이란 뜻) 사람들이 나와 각자 자기 언어로 언어가 힘을 되찾기를 바란다는 점을 밝혔다. 안타깝게도 앞에서 말한 이유 때문에 디아기타 대표는 스페인어로 연설할 수 밖에 없었다.

그 뒤는 스페인 바스크 자치정부에서 보낸 대표의 강연이 이어졌다. 바스크 대표의 강연은 대체로 바스크어가 얼마나 힘든 환경에서 살아남아 왔나, 정부와 민간의 협력이 언어를 되살리는 데 얼마나 중요한가를 분명히 하고 실제로 그런 정책의 결과로 언어가 힘을 되찾을 수 있다는 점을 알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강연에서 언어의 권리를 법으로 인정하고, 맞춤



‘에우스케라(바스크어)의 현재와 미래’, 바스크어 부흥 정책 경험 설명의 한 장면이다.(필자 사진)

법을 표준화하고, 행정 기관에서 그 언어를 쓰는 사람을 고용하고, 어린이와 어른에게 언어를 가르치고, 대중매체, 소비, 문화 활동 등에도 그 언어를 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었다. 강연자가 보여준 각종 도표에 따르면 이러한 정책을 실행한 바스크 자치령에서는 인구 증가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바스크어 사용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프랑스령 바스크 지역에서는 바스크어가 사라져가고 있고, 바스크 인구가 많은 스페인 나바라 지방의 바스크어 회복세는 매우 더딘 상황이다.

그 뒤 점심시간에 글쎄이는 안티나오 할머니와 할머니의 마푸체 제자인 로사리오 라피만과 학교 식당에서 같이 점심을 먹었다. 점심을 먹으면서 필자는 로사리오의 성인 라피만에서 만든 망케, 즉 콘도르란 뜻인데 라핀은 무엇인냐고 물었다. 그러자 안티나오 할머니께서는 고개를 저으며 다 먹고 나서 말해주겠다고 하였다. 거기에는 다 이유가 있었다. 할머니가 나중에 말해 준 바로는 라핀은 ‘구역질하다’는 뜻이었다. 라피만은 ‘구역질하는 콘도르’라는 뜻이었던 것이다. 라핀에 다른 뜻은 없을까요라고 물었지만 적어도 그 자리에서는 알 수 없었다. 로사리오는 “구역질을 하면 사람이 병에서 낫지 않느냐. 치료와 관련된 뜻일 것이다”라고 강력하게 주

장했다.

점심식사 후 오후 3시 반 쯤부터는 갈바리노(Galvarino) 시에서 온 마푸체족의 차례였다. 갈바리노 시는 칠레에서 2013년에 마푸체어를 스페인어와 함께 공식 언어로 인정한 첫 도시이다. 갈바리노 마푸체족은 마푸체 구연동화인 에페우와 초이케푸룬(아메리카의 새인 난두 레아를 본딴 춤)을 공연했다. 그 뒤에도 몇 가지 원주민 문화 관련 공연이 있었다.

그 후로는 칠레 원주민어 정책과 관련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거기에서 교육부 대표로 나온 발표자는 지금도 원주민어는 죽어가고 있으므로 더욱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며, 현 정책에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고 인정하였다. 그리고 상호문화성 및 마푸체 교육을 위한 단체(Bloque de Educación Mapuche e Interculturalidad) 소속의 크리스티나 파이네말은 칠레에서 20년 동안 상호문화성을 교육했지만 아무 효과가 없었다고 말하며, 이는 정부가 상호문화성 정책에 힘을 쏟을 생각이 없기 때문이라며 정부를 비판했다. 아직도 마푸체어가 살아있는 것은 정부 정책 덕분이 아니라 마푸체 가족과 공동체의 노력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마푸체 변호사인 라우타로 룡콘은 현재 칠레 국회에서 토의 중인 원주민어 정책 권리 법안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라우타로 룡콘에 따르면 원주민어를 공식 언어로 보장하고 가르치게 하는 법은 집단으로서 원주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으로써 프랑스식 개인주의에 바탕을 둔 칠레 법 체제에서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갈바리노 마푸체 영토 위원회(Consejo de Territorio Mapuche de Galvarino)의 전령(Werken)인 마누엘 산탄데르는 칠레 정부가 다른 시각, 다른 언어, 다른 문화를 인정하고, 아직도 식민주의적이자 인종주의적인 교육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리고 정부는 상호문화성 교육에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고, 원주민이 그 교육을 이끌어가야 한다고 하였다.

발표 및 토론회가 끝나고 6시 경부터는 페루 정부의 상호문화성 부서 원주민어 국장 호세 안토니오 바스케스가 페루의 원주민어 정책을 소개하는 자리가 있었다. 바스케스에 따르면 페루에는 수많은 원주민어가 있고, 그 가운데 케추아어를 하는 사람은 500만 명가량으로 우루과이 전체 인구

보다도 조금 더 많다. 그러나 여전히 원주민어는 푸대접 받고 있으며, 말이 통하지 않아 자기가 무슨 죄목으로 감옥에 있는지도 모르는 원주민이 열에 아홉 명이나 된다고 한다. 그래서 페루에서는 원주민어 활성화 법을 제정하고, 최근에는 법정에서 원주민 통역을 맡을 통역사를 육성하고 있다고 한다. 지역 진료소에서도 원주민이 자신의 언어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페루의 경험을 알리는 시간이 끝난 뒤에는 다시 엘리사 롱콘이 말을 보탰다. 엘리사 롱콘은 칠레 원주민이 어떻게 바스크족과 페루의 경험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야 하며, 원주민어를 단순히 가르치는 것만 아니라 사법, 의료, 통신 등 영역에서도 활용하는 상호문화성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 뒤 원주민 언어로 된 시 낭송으로 대회의 15일 일정은 막을 내렸다.

16일 일정은 오전에는 알베르토 우르타도 대학교의 여러 강의실에서 동시에 서로 다른 발표자가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으며, 오후에는 다시 모두 한 자리에 모이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오전에 발표를 마친 필자는 식민주의와 언어 문제를 다룬 발표장에 들어가 발표를 들었다.

첫째 발표자인 토마스 미란다 사우세도는 페루의 상호문화대학교(Universidad Intercultural)의 경험을 소개했다. 미란다 사우세도는 현재 대부분의 대학교는 유럽 방식의 개인주의 대학교이지만 상호문화대학교는 집단의 권리를 위한 대학교이며, 원주민 문화와 언어의 힘을 되찾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원주민 문화 교육을 농촌과 원주민이 많은 지역에서만 실시하라고 요구하는 세계은행의 방침을 비판하면서 원주민 문화는 원주민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같은 이유로 법조문에서만 원주민 문화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선언하고 실천은 거의 없는 페루의 상황을 비판하기도 했다.

다음 강연자는 아이마라어 교사인 마누엘 마마니였다. 마마니는 아이마라어는 다른 언어와 문화의 영향을 흡수해 왔지만 아이마라어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으며, 아이마라어에 들어온 스페인어 어휘가 어떻게 아이마라식으로 바뀌었는가를 도표를 들어가며 설명했다. 다른 언어의 낱말을 받



아이마라어 교사인 마마니가 아이마라어의 차용어 구조를 설명하고 있다.(필자 사진)

아들이더라도 아이마라어에 위협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자신감이 엿보이는 설명이었다.

그 다음으로는 칠레 산티아고 대학교의 역사학 교수인 카를로스 부스토스 레예스가 식삭(Zig Zag) 출판사의 검정교과서를 검토하여 칠레 역사 교육이 얼마나 식민주의와 인종주의에 찌들어 있는지를 밝혔다. 식삭의 역사 교과서는 유럽의 위대함을 설명하고, 유럽이 어떻게 세력을 넓혔고, 어떤 기술을 발명했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유럽 찬양 일색인 동시에 유럽인이 아닌 원주민을 짐승 같은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칠레 법률대로라면 역사 교과서는 민족에 대한 편견을 불식해야 하지만 실제로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가 이 모양이라는 것이었다.

잠시 앞의 세 사람이 발표한 내용을 중심으로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진 뒤에는 아나 파올라 키스페와 가르시엘라 마마니, 두 사람이 함께 아이마라 언어 학회(Academia Nacional de La Lengua Aymara: Aymar Aru Sarayiri)를 소개했다. 한 사람이 스페인어로 설명하면 다른 사람이 아이마라어로 통역하는 식이었다. 학회는 무료 아이마라어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앞서 언급한 마누엘 마마니도 이 무료 강의에 참여하고 있었다.

아이마라어 교사들의 발표 뒤에는 역시 산티아고 대학교 교수인 페드

로 카날레스 타피아와 헤사벨 구아만이 디아기타 민족이 베릭 골드(Barrick Gold)라는 다국적 기업을 상대로 벌이는 투쟁을 설명했다. 거기에서 디아기타 족이 원주민으로서 권리를 주장하나 고유 언어를 잃어버린 것 때문에 느끼는 불안감 역시 알 수 있었다.

뒤이어 나탈리 칸시노 카베요의 발표가 있었다. 나탈리의 발표문 제목은 ‘아메리카에 스페인 제국이 있던 시절 스페인은 원주민어를 대상으로 어떤 정책을 실시했나’였다. 사실 스페인 제국에는 원주민어에 대한 확고한 정책이 없었지만 그럼에도 몇 가지 일관성은 있었는데, 그 중 하나는 원주민어와 문화를 연구하여 기독교 선교에 이용하더라도 최종 목적은 그 언어와 문화를 말살하는 것이었고, 원주민어를 설명할 때도 ‘유럽어에는 있는 무언가가 원주민어에는 없다’는 식으로 설명하였다는 것이다.

마지막 발표자는 알폰소 사에스였는데, 사에스는 정부가 말과는 달리 제대로 된 원주민 언어 교육 정책을 시행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정부 기관에 만연한 식민주의 탓이라며 정부를 비판했다. 그리고 마푸체어 교사들의 의견 또한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점심시간 이후에는 대강의실(Aula Magna)에 모든 사람들이 모여 원주민 언어 및 문화에 대해 새로 나온 책과 자료를 소개하는 자리가 있었다. 여러 가지 자료가 소개되었지만 여기서는 글쓴이가 본 세 자료만 소개하고자 한다.

하나는 『아이마라어를 배우세요』(Aymara yatiqaña)라는 CD다. 이 CD는 아이마라어를 배우거나 가르치는 사람을 도우려고 역시 아이마라 교사인 헤나라 플로레스가 만든 것으로, 녹음된 내용을 들으면서 아이마라어를 배우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헤네라 플로레스는 CD에 대해 설명하던 중에 CD에 실린 노래인 「안녕하세요」를 강의실에 모인 사람들과 함께 부르며 흥겨운 분위기를 만들어냈고, 그 다음에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에게 CD를 무료로 증정하기도 했다.

다른 책자는 『웨누마푸, 마푸체의 천문학과 우주론』(Wenumapu, astronomía y cosmología mapuche)로 마르가리타 카니오(Margarita Canio)와 가브리엘 포소(Gabriel Pozo)의 작품이다. 이 책은 마푸체 노인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하늘의 별자리를 어떻게 해석했는가를 다루고 있는데, 책 소개



마푸체 문화의 다양한 상품들과 함께 진열된 클로린다 안티나오의 마푸체어-스페인어 사전(필자 사진)

는 여러 별 자리 사진과 거기에 대한 마푸체의 묘사를 그림으로 보여주며 진행되었다.

또 다른 책자로는 클로린다 안티나오 바라스(Clorinda Antinao Varas)의 『우리의 언어 마푸체 사전』(Diccionario Mapuche Ta iñ mapun dungun)을 들 수 있다. 이 책은 마푸체어 단어를 거기에 대응하는 스페인어 단어로 예문과 함께 소개하고 있어서 마푸체어를 배우는 사람의 필수 참고서이다. 하지만 책 앞부분에는 어린 시절 마푸체어만 구사하고 살았던 마푸체 여성이 스페인어만 강요하는 칠레 학교에서 겪었던 일을 소개하는 부분도 흥미롭다. 책을 소개하는 자리에서도 책 내용보다는 안티나오 자신이 마푸체어 교육자이자 마푸체 은제 장신구 제작자로서 겪은 삶의 이야기가 중심이었다.

대회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어떻게 원주민 언어에 다시 힘을 불어넣을 것인가를 놓고 정책과 교육 경험에 대해 토론하였다. 그 과정에서 정부가 지원을 받는 단체에 요구하는 아쭈체페(Azümchefe) 마푸체어 표기법에 대한 불만과 함께 새로운 위원회를 구성하고 거기에 원주민 대표가 참여하게 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다음 대회에서는 대회장에 온 어린

이들을 위한 활동도 별도로 마련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그렇게 끝난 3차 칠레 원주민언어대회는 우리가 오늘날 라틴아메리카라고 부르는 지역에 대해 재고할 여지를 많이 남겼다. 우리 한국인은 스페인어와 포르투갈어만 알면 이 지역의 모든 것을 공부할 수 있다고 믿는 경향이 있다. 수세기전 유럽에서 기원한 식민주의가 오늘날까지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칠레 독립의 아버지라는 베르나르도 오이긴스(Bernardo O'Higgins)도 칠레를 통치한 스페인 제국 고위 관리의 아들이었으니, 사정이 거의 같은 라틴아메리카 전역에서 스페인 제국의 지배가 끝난 뒤에도 식민지배자 직계 후손의 문화와 언어가 여전히 사회를 지배하고, 원주민의 언어와 문화를 멸시하는 것도 당연하게 여겼다. 그래서 여러 원주민어가 사라졌고, 살아남은 원주민어와 문화조차 상당수가 활력을 잃은 상태이다. 칠레에서 가장 사용자가 많은 원주민어인 마푸체어조차도 앞날은 결코 밝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위협에 빠졌다고 하여 아직 죽은 것은 아니며, 설사 죽더라도 그 유산이 세상에서 쉽게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이 지역에는 여전히 ‘라틴’이 아닌 부분이 많이 남아있고, 지금 다시 ‘라틴’의 그림자를 벗어나 제 모습을 드러내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러한 싸움과 거기에 얽힌 역사를 뒤쫓다 보면 우리는 ‘라틴아메리카’가 어떻게 식민주의의 방식으로 다른 세계를 지워가며 커져왔는가를 알게 된다. 한 예로 라틴아메리카의 일부인 칠레는 남으로는 마푸체, 셀크남, 카웨스카르 등의 종족이 지닌 문화와 세계를 지우고, 북으로는 아이마라와 케추아의 문화를 지우며 덩치를 키워왔다. 태평양으로는 라파누이의 문화가 희생양이 되었다. 남으로도 북으로도 태평양으로도 그러한 정복전쟁을 통해 뻗어나가 세계에서 가장 길쭉한 나라로 알려지게 된 칠레에서는 외국인이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스페인어 방언의 차이조차 거의 없으며, 전국에서 똑같은 쿠에카 춤을 추는 지역성이 매우 약한 나라다. 예전에 그 지역에 존재하던 다른 문화는 짓밟았으되 거기에 새로 이식된 정복자의 사회가 중앙과 분리된 고유의 전통을 일구기에는 아직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일 것이다. 그 때문인지 산티아고와 차별되는 지역성을 강조하려는 일부 지역주의 세력은 원주민 운동과 손을 잡고 원주민 문화를 지역의 독자성으로 내세우려 한다. 그러나 원주민 단체는 이런 식으로 지역에 한

정된 존중이 아닌 스페인과 유럽 문화와 동등한 대접 및 인정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스페인 제국 몰락 이후로도 원주민 문화와 권리를 억누르고 사실상 탄압을 강화한 라틴아메리카 공화국 체제의 식민주의에 대한 고발도 함께 터져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이러한 운동은 사실 전 세계적인 흐름과 연결되어 있기도 하다. 3차 칠레 원주민언어대회에서 소개된 바스크어 부흥 정책의 사례는 그 중 단 하나의 사례일 뿐이다. 저마다 서로 강도는 다를지언정 세계 곳곳에서 자기 언어를 지키고 되살리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제주도에서 제주어의 사멸을 막으려는 노력이 일어나고 있음을 생각하면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이제 라틴아메리카,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칠레, 한국 같은 공식화한 지역 이름에 가린 다른 세계를 발견해야 할 때이다.

조성훈 — 칠레대학교 역사학 박사 과정